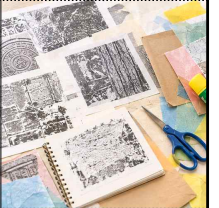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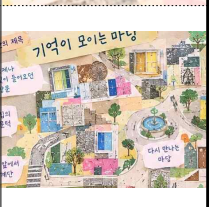


○ 교육계획서

프로그램명	기억이 머무는 표면
교육목표	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살아온 참여자들의 기억을 모아, 모두에게 익숙하면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상상 속 동네를 완성한다.
교육내용	▷ 회차별 기본 운영안  - 양나영 작가의 작업물에 나타나는 도시의 표면과 오래된 공간의 재질감, 건축적 요소(계단, 창문, 통풍구 등)를 바탕으로 주변 공간의 흔적을 관찰하고 채집한다. - 자신이 살아온 집과 동네, 방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시각화한다. -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살아온 참여자들의 개별 작품을 모아 공동의 가상 동네를 구성한다.
프로그램 주요 특징	① 일상 공간의 재탐색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경험 확대 ② 개인 창작에서 공동 창작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예술교육 운영 ③ 참여자 간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 형성 ④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예술적 경험 제공
교육주제	도시의 표면 · 일상의 주거 공간 · 시간의 흔적 · 기억의 재구성
참여 작가	양나영 작가
교육대상	지역민
교육인원	16명 내외
교육일시	2026. 10. 14. ~ 11. 18. / 10:00 ~ 11:00
교육시간	회당 약 60분
교육회차	6회차

○ 세부 프로그램 내용

회차	교육일시	교육명	주요 활동	참고 이미지
1	10. 14. (수) 10:00 ~ 11:00	표면을 바라보는 방법	- 양나영 작가의 작품에서 벽, 계단, 창문, 통풍구, 틈과 균열 등의 요소 찾아보기 '나의 공간 기억 카드' 작성하기 - 기억에 남는 공간의 모습을 선과 면으로 간단히 그려보기	
2	10. 21. (수) 10:00 ~ 11:00	도시의 표면 채집	- 동네 천천히 걸어보기 - 종이나 천 아래에 무늬가 있는 물체를 대고 문질러 질감 수집하기 - 산책하며 떠오른 기억과 관련된 단어 적어보기	
3	10. 28. (수) 10:00 ~ 11:00	기억의 조각 만들기	- 수집한 질감을 자르고 접어 '공간 조각' 제작하기 - 색지, 반투명지 등을 이용해 기억 조각에 색과 빛 더해보기 - 만든 기억 조각의 뒷면에 관련된 기억을 짧은 문장으로 적어보기	
4	11. 4. (수) 10:00 ~ 11:00	기억 속 공간 재구성	- 공간 조각을 바탕지 위에 두고 크기, 방향, 거리와 겹침 등을 바꾸어 보기 - 내가 만든 작품에 이름을 붙이고 소개하는 글 쓰기	
5	11. 11(수) 10:00 ~ 11:00	서로의 공간을 연결하기	- 각자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동네 만들기 - 길, 골목, 계단 등 공용 공간 더해보기 - 함께 만든 동네에 이름 붙이기	
6	11. 18(수) 10:00 ~ 11:00	기억의 공간 전시하기	- 공동 작품 완성하기 - 완성된 공간을 함께 감상하고 소감 나누기 '이 공간을 걷는 사람에게' 한 문장 작성하기	